

김초엽 소설에 나타난 테크놀로지와 시간정치

최병구*

【요약】

이 글은 김초엽 소설에 나타난 시간정치 문제를 살펴본다. 금융 자본주의 사회는 대출과 신용을 매개로 미래를 현재화한다. 불안정성에 노출된 주체는 현재를 유예하며 미래를 위한 자기 계발에 몰두한다. 동시에 금융 자본의 시간에 동참하지 못하는 주체를 혐오와 비난의 대상으로 낙인찍는다. 장애의 시간은 이러한 금융 자본주의의 시간에 대한 비판이자 우리가 공유해야 하는 세계이다. 「로라」와 「캐빈 방정식」은 장애를 치료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회의 시간성을 비판적으로 상대화하고 있다. 「마리의 춤」은 일상의 시간을 정지시키며 장애의 시간을 현재로 끌어들인다. 한편 여성과 장애인은 금융 자본주의의 시간에 합류하지 못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여성에 초점을 둔다는 것은 단순히 여성의 권익을 되찾자는 구호가 아니라 여성의 시간을 비가시화한 사회의 시간이 내포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일이다.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에 나타난 공정성과 「관내분실」에서 엄마의 시간에 대한 딸의 인식은 이를 잘 보여준다.

【주제어】 과학소설, 젠더, 금융 자본주의, 시간정치, 장애, 김초엽

* 경상국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https://doi.org/10.34162/hefins.2022..29.010>

I. 젠더와 장애, 또 다른 시간정치의 시작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친 이후 SF 문학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포스트 휴먼, 인공지능, 가상세계 등 테크놀로지에 기반을 둔 새로운 인간 사회에 대한 관심이 코로나 19를 계기로 더욱 가속화된 것이다. 현재화되지 않았던 기술과 문명의 미래가 바이러스를 계기로 순식간에 일상이 되고, 이에 맞추어 SF 문학이 문단과 학계를 휩쓸고 있다. 그간 ‘본격문학’이란 기준에 따라 ‘공상과학소설’로 평가 절하된 SF 문학에 대한 높은 관심은 환영할 만한 일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SF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중독을 경계해야 한다.¹⁾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심이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술과 인간, 환경 사이의 관계 재구축이라는 목적을 외면하고, ‘테크놀로지’를 소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SF는 포스트 휴먼의 장르이지만, 포스트 휴먼에 대한 사유가 구체적 현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자칫 유행에 편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SF가 담고 있는 포스트 휴먼 서사에 함축된 이면을 적극적으로 독해할 필요가 있다. 가령 SF 소설의 주인공 성별이 유독 여성이 많은 이유를 이론과 현실을 교차하여 사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김초엽 소설을 살펴볼 것이다. 2017년 「관내분실」로 등단한 김초엽은 첫 번째 단편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2019)을 발간하고, 명실상부 202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올라서고 있다.²⁾ 오랫동안 한국 문단의 변방에 위치했던 SF의 활황과

1) 조애나 러스는 1970년대 미국 학계, 특히 인문학자 사이의 테크놀로지 담론의 유행을 ‘중독’으로 비판한다. 테크놀로지가 만들어 낸 구체적인 현실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유행이자 포즈로 전락한 학계의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조애나 러스, 나현영 역 (2020), pp. 75-103.

퀘를 함께한 김초엽의 등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짐작하듯 가장 중요한 이유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미래를 당겨오며 테크놀로지가 일상의 전면에 등장한 까닭이다. 이와 함께 이 글이 주목하려는 것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기술 진보가 만든 비극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인간형, 즉 포스트 휴먼의 도래가 시급한 과제가 된 현재의 국면이다.³⁾ 이런 맥락에서 김초엽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과 포스트 휴먼의 상관은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가령 김초엽 소설은 “보편 지식에 저항하는 새로운 과학 서사”를 썼으며, “여성 인물들은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유색인 여성 혹은 노인이라는 교차적 정체성”⁴⁾을 통해 근대의 이원론을 극복했다는 평가나 주요 이론을 바탕으로 김초엽 소설의 여성들이 갖는 함의를 자연, 기계 등과 연결한 논의⁵⁾를 통해 테크놀로지와 연결된 젠더 개념의 확장성이 밝혀졌다. 또한 김초엽 소설의 장애라는 화두가 갖는 포스트 휴먼의 성격을 고찰하며, 장애/비장애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재개념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논의도 있다.⁶⁾

이 글은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고하면서 김초엽 소설이 여성과 장애에

2) 한소변(2019), “2020년대 대표작가 박상영·김초엽·장유진..한국문학, 넓어지고 젊어진다”, <https://news.v.daum.net/v/20191212044307429>. 그렇다고 이 말이 김초엽이 한국 SF 작가 중 가장 뛰어난 작품을 발표했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등단한 김초엽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SF 문학이 주목을 받는 과정에서 공대 출신에서 비롯되는 디테일한 묘사와 특유의 문체로 대중에게 널리 읽히게 되었다. 요컨대 현재 대중이 가장 주목하는 작가로 김초엽을 들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왜 하필 김초엽 소설에 나타난 시간정치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즉 2022년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SF 작가의 소설을 통해 대중과 테크놀로지의 접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시간정치’라는 매개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3) 포스트 휴먼의 문제의식과 SF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노대원 (2018), pp. 110-133을 참고할 수 있다. 또 코로나 19 사태 이후 기후 위기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혐오성 발언이 증가하는 상황을 떠올릴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국면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4) 연남경 (2020), p.125.

5) 김미현 (2020); 신성환 (2020).

6) 김윤정 (2021).

초점을 두며 서사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정치(Time politics)’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김초엽 소설에서 젠더와 장애는 인공지능, 로봇 등과 같은 테크놀로지와 연결되어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다. 포스트 휴먼의 테크놀로지가 마주하는 현실의 갈등 구조를 가시화하는 개념으로 젠더와 장애는 긴밀하게 연결된다. 하지만 그간의 연구는 포스트 휴먼의 모습을 김초엽 소설에서 찾는 과정에서 젠더와 장애를 경유했지만, 소설이 그려내고 있는 포스트 휴먼의 초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식론적 메커니즘을 거쳐서 가시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가령 김초엽 소설이 장애에 대한 통념을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통념의 전환이 어떤 지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김초엽 소설이 장애와 젠더에 대한 통념을 전환하는 계기로서 새로운 시간성을 제시했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김초엽 소설에 두 개의 시간이 공존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 천착했다. 하나의 시간은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의 시간이자, 트랜스 휴먼의 세계이다.⁷⁾ 우리 사회는 근대 산업 자본주의를 거쳐 포스트 자본주의로 진입했다. 이 과정을 네그리와 하트는 시간성을 매개로 시초 축적 국면, 전 지구적 경제 확장 국면, 포스트 포드주의 국면으로 구분한다. 각각 생산, 소비, 착취로 설명할 수 있는 이 과정은 자연의 시간(생산)에서 시간의 분할(소비)을 거쳐 시간의 박탈(착취)로 이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포스트 포드주의 국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오늘날 노동시간과 삶 시간이 점점 더 혼합됨에 따라 노동일의 분할이 무너지고, 우리는 삶의 모든 시간에서 생산적으로 되도록 요구받는다. 스마트폰을 손에 쥔 당신은 실제로 노동에서 멀어지지 못하거나 시계를 끄지 못한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스마트폰과 접속하면서 일과 여가의 경계를 혼동하며 밤 시간과 잠을 잡아먹는다. (중략)

7) 트랜스 휴먼은 성장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와 과학기술의 연계성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시간성을 공유한다.

가치의 포획은 삶의 모든 시간을 감싸는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결코 잠들지 않는 전 지구적 체제 안에서 생산하고 소비한다.⁸⁾

테크놀로지가 일/휴식의 경계를 허물면서 우리는 멈추지 않는 기계처럼 쉬지 않고 자기를 계발하는 주체가 되어야 했다. 우리는 불안정한 현재를 견디며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지만 기실 안정된 미래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이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따라 24시간 쉬지 않고 이동하는 시대에 우리의 삶은 더욱 규범화되고 예측화된다. 왜 그럴까? 인용문은 스마트 폰이 상징하는 테크놀로지로 공/사의 경계가 흐릿해지며 삶 전체가 자본에 포획당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국가의 금융 통치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과정을 간단히 말하자면 산업 자본주의에서 금융 자본주의로의 이동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산업 자본주의는 미래보다 현재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이다. 내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은행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는 현재 내가 견디는 시간이 올바르다는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한다. 저축하여 모은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던 시절에는 보통의 사람도 안정적인 생애주기를 관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 세계적 연결망에 토대를 둔 금융 자본주의 시대는 현재가 아닌 미래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현재는 유예되고 미래가 현재로 확장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생산과 소비를 멈추지 않으며 자본의 회전을 빨리할수록 경제가 성장한다는 금융 자본의 논리에 적응하는 것이 모두의 과제가 되며, 이를 수행하기 한 대출과 신용이 중요해진다.⁹⁾

8)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이승준·정유진 역 (2020), pp. 320-321.

9) 금융 자본주의 시대에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가치판단이 역전되는 현상에 대해 강 내회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래할인 관행에서 미래시간의 가치는 현재로 소환되어 평가된다. 이런 시간 조직이 가상성을 띠는 것은 미래가 여기서는 실질적 현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금융화의 진전으로 인해 오늘날 이런 일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금융화는 미래 불확실성을 현재 계산 가능한 확률 문

두 번째의 시간은 첫 번째의 시간정치에서 배제된 주체들의 시간이다. 첫 번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정언명령에 노출된 주체들의 자아기술로서 재테크는 합리적이고 과학적 실천으로 승격되었지만, 신자유주의 시대 경쟁과 고용 불안정에 노출된 주체는 금융 자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탄생한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의 금융 통치는 국가 경제를 성장시켰지만 그럴수록 빈자의 범주는 확대되었다. 무엇보다 이 범주에는 빈자만이 아니라 여성과 장애인이 포괄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빈자·여성·장애인의 시간은 성장을 위해 비정상적으로 취급된 존재들을 가시화하며 개별자들의 연대와 연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포스트 휴먼의 시간이라 불릴 수 있으며, 그런 만큼 트랜스 휴먼의 시간에서 벌어지는 혐오와 적대의 감정과 결별할 가능성이 내재되어있다.¹⁰⁾

두 개의 시간을 함께 사유하는 텍스트로서 김초엽 소설은 자연 정복의 도구로 테크놀로지를 발전시켜 온 근대 인간의 시간성이 갖는 한계와 극복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김초엽 소설은 장애와 젠더 문제를 교차하며 포스트 자본주의의 시간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간정치를 추구한다. 장애와 젠더의 교차점에 위치한 시간을 문제 삼는 일은 지배 질서에서 일탈한 존재나 행동을 질병 취급하는 정상성의 범주를 질문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 국가 권력이 차이를 불평등으로 수렴하는 메커니즘을 확인하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관계를 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는 주체로서 포스트 휴먼을 정의하는

제로 전환시키는 금융적 거리가 사회적으로 만연한 현상으로서, 이 과정에서 시간이 새롭게 조직된다. 미래가 끊임없이 현재화되고, 현재는 필요한 만큼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강내희 (2004), pp. 350-351.)

- 10) 로지 브라이도티는 인간 중심주의와 단호히 결별하는 포스트 휴먼의 문제의식을 ‘횡단 신체성’으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온실효과, 여성의 지위,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 그리고 과도한 소비주의 사이의 상호연계성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들의 파편화된 한 부분에 멈춰서기보다는 그 부분들 사이의 횡단적 상호연계성을 추적해야 한다.”(로즈 브라이도티, 이경란 역 (2015), p. 122.) 자연 파괴와 특정 인종과 여성을 배제하는 시간에 대한 비판적 개입을 하는 주체로 포스트 휴먼을 정의한 것이다.

일이다.¹¹⁾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혐오의 일상화 혹은 공정 담론¹²⁾이 지배적 가치로 자리 잡은 현재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면 과외의 성과가 될 것이다.

2장에서는 「로라」, 「캐빈 방정식」, 「마리의 춤」¹³⁾을 중심으로 두 개의 시간이 교차하는 맥락과 연결의 방법으로서 폭력의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의 시간성이 갖는 대항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장에서는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 「관내분실」¹⁴⁾을 중심으로 젠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시간문제를 살펴본다. 2장과 3장의 논의는 편의상 구분한 것이지만, 장애와 여성의 시간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II. 장애의 시간성- 금융 자본의 시간에 대한 비판과 변화의 순간

과학소설이 “과학과 기술을 바라보는 우리의 문화적 선입견을 찬양하는 동시에, 과학과 기술이 우리의 세계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방식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도 표현”¹⁵⁾한다는 정의를 신 뢰한다면, 이 시대에 가장 먼저

11) 장애와 퀴어의 교차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해은 (2018)을 참고할 수 있다.

12) 식민지와 전쟁의 여진이 아직 남아있던 1960년대에 태어나 80년대 대학을 다닌 세대는 경제적으로도 그나마 평등한 조건에서 민주주의라는 대업을 위해 싸울 수 있었다. 하지만 386 세대들이 기득권이 된 이후 20대가 된 세대들은 견고한 자본주의 구조에서 한치도 벗어나기 어렵다. 더욱 큰 문제는 명문대 교수 아버지를 둔 20대와 그렇지 못한 20대의 격차를 좁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 공정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 중요한 이유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조귀동 (2020)을 참고.

13) 세 작품은 김초엽 (2021)에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본문 인용은 이에 의거해 페이지 수만 밝히도록 하겠다.

14) 두 작품은 김초엽 (2019)에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본문 인용은 이에 의거해 페이지 수만 밝히도록 하겠다.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문화는 단언컨대 자본의 세계이다. 역사적으로 자본 시장의 위기가 닥쳐오면 국가는 기술력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며 진보해 왔다. 근대 사회의 탄생과 성장의 전 과정에서 과학기술이 미친 영향력은 부언의 여지가 없을 만큼 절대적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산업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 바로 금융 자본주의이다.¹⁶⁾ 다시 말해 새로운 규범으로서 금융 시스템은 불안정한 사회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새로운 규범이 작동하는 원리는 간명하다. 은행에서 원하는 돈을 대출받을 수 있을 만큼의 신용을 갖추어 돈을 빌린 뒤에 원하는 상품을 소비하는 주체가 되는 것. 우리는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계발과 타인과의 경쟁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했다.¹⁷⁾

우리에게 익숙한 정상성의 범주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학벌로 대표되는 상징자본과 이성애 중심주의, 그리고 건강한 신체 등은 금융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한 정상성의 내포를 구성한다. 정상성의 범주가 자명한 사실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 구성된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지만, 우리의 신체와 의식은 정상성의 범주에 속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과 자신을 분리하는 것에 익숙하다. 김초엽 소설은 “장애인 되기를 수행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편견과 인식적 왜곡을 성찰하고 재개념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¹⁸⁾ 이때의 장애를 정상성의 범주에서 벗어난 존재들에 대한 은유로 볼 수 있다면, 중요하게 질문되어야 하는 지점은 재개념화의 메커니즘이다. 다시 말해 정상/비정상의 경계가 구획되는 시간의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로라」의 고유 수용 감각을 잃고 몸 정체성 통합 장애를 앓고 있는 로라와

15) 세린 빈트, 전행선 역 (2019), p.13.

16) 산업 자본주의의 위기와 그 해결책으로서 금융 자본주의의 성격에 대한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폴 메이슨, 안진이 역 (2017), pp. 34-78.

17) 한국적 상황에서 금융 자본주의의 등장과 주체의 내면화 과정은 최철웅 (2016)을 참조할 수 있다.

18) 김윤정 (2021), p.103.

그의 애인 진은 서로 사랑하지만, 결코 만날 수 없는 거리감을 형성한다. 진은 거리감을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로라와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잘못된 지도』를 출간했지만, 신체와 의식이 불일치하여 세 번째 팔을 원하는 로라와의 거리감은 끝까지 좁혀지지 않는다. 동일한 시공간에 존재하지만, 작가가 “진이 끝내 이해할 수 없을 로라가, 그곳에 있었다.”(p. 127.)라고 결론지을 만큼, 좁혀질 수 없는 두 사람의 거리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소설에서 로라가 앓고 있는 몸 정체성 통합 장애는 치료를 통해 극복해야 하는 대상이다. 사회와 진은 로라를 병리화(pathologization)하고 사회질서와 규범에서 이탈한 존재로 규정한다. 의료적 틀에서 규정된 병리화는 의료 전문가들이 사회적 소수자들의 삶을 좌우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갖는다. 의료화가 질병을 정의하고 대상자의 생존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정의되지 못하면 죽음을 맞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며, 질병을 개인의 문제로 소급시키고, 차이가 질병으로 규정되며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로라는 세 번째 기계 팔을 신체에 부착하는 과정을 진에게 이야기하며 “내가 되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어. 나 자신이 되는 일은 인생 전체를 건 모험이야”(p. 118.)라고 한다. 사회적으로는 장애이지만, 기계 팔을 통해서야 의식-몸이 일치하는 ‘나’가 될 수 있었던 로라는, 다시 화살을 돌려 그를 병리화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규범성에 대해 질문하는 주체다. 이런 로라의 인식이 가지는 의미는 트랜스 휴먼과의 대비 속에서 좀 더 분명해진다.

소설에서 세계 트랜스 휴먼 연합회장은 그들이 신체를 변형하고 개조하는 이유가 “더 나은 기능을 추구하며, 기존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p. 211.)에 있다고 명확히 언급한다. 트랜스 휴먼은 인간 신체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테크놀로지의 도움을 받는 존재이다. 기술의 도움으로 노화와 같은 인간 신체의 한계를 극복한 트랜스 휴먼은 인간 중심주의 혹은 휴머니즘의 강화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자본주의 근대의 인간 표상을 더욱

극단으로 몰고 간 상태이다. 트랜스 휴먼의 테크놀로지는 근대 계몽사상의 연장에 있다는 점에서 시장 중심의 자유주의와 상당 부분 겹치는 것이기도 하다.¹⁹⁾ 그러니까 트랜스 휴먼은 인간 우월주의라는 의식과 자신의 신체를 일치시키기 위해 스스로 자기의 몸을 훼손한 것이다.

무엇보다 트랜스 휴먼이 추구하는 인간 신체의 한계 극복이란 금융 자본의 시간에 편입하는 과정이다. 근육을 신소재로 채우고 시력을 증강하는 행위는 젊음을 유지하고 지속하면서 더 많은 자본을 획득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그래서 트랜스 휴먼은 근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완전한 세계를 향해 나아간다고 홍보되지만, 이미 진행 중인 트랜스 휴먼 사회는 이런 이상과는 거리가 멀다. 가속도의 시간을 견디며 오늘을 살아가는 주체들은 공동의 삶에 대한 의식적인 지향과 나의 신체를 자본화하는 규범성을 무의식적으로 따르는 모순을 안고 있다. 해서 몸과 의식이 통합된다는 것, 즉 트랜스 휴먼으로 승화된다는 의미는 몸과 의식이 완전히 자본화된 주체가 되는 것이다.

로라는 바로 이런 의미의 몸 통합 정체성을 거부한다. 로라는 트랜스 휴먼과 마찬가지로 기계와 자신의 신체를 연결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인간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도구로 기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계를 자신과 같은 주체로 생각하고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녀는 테크놀로지를 인간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몸과 의식이 통합되지 못한 그녀가 가진 질병의 함의란 거꾸로 테크놀로지에 토대를 두고 이루어지는 몸과 의식의 자본화를 상대화하며, 금융 자본주의의 시간 통치가 갖는 폭력성을 드러내는 효과를 거둔다. 요컨대 「로라」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도구로 기계를 사용하는 트랜스 휴먼 혹은 그 연장 선상에 있는 진의 시간을 로라의 시간과 대비시키며, 우리에게 어떤 시간성을 따를 것인지를 사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캐빈 방정식」은 인간의 신체와 의식이 자본주의적 시간 개념과 어떤

19) 트랜스 휴먼의 철학과 한계에 대해서는 신상규 (2014)를 참고.

연결성을 맺고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룬다. 소설은 주위와 분리된 하나의 작은 시공간을 형성하는 국지적 시간 거품에 관한 연구로 세계의 주목을 받은 여성 물리학자 유현화가 사고로 장애를 얻게 된 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현화는 사고로 뇌에서 시간을 인지하는 회로에 문제가 생겨 한 시간, 혹은 십 분을 끝없이 늘려놓게 되었다. 평범한 사람이 십 분이면 할 일을 현화는 일주일이나 걸려서야 간신히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선 중요한 것은 시간 거품은 과학의 대상이면서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이라는 가정이다. 동생 현지는 언니의 병명을 듣고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분배된 유일한 자원이라고 한다. 어쩌면 언니도 그 격언의 열렬한 신봉자였을지 모른다. 우리가 보는 것이 같은 빨간색일까 묻는 사람들은 있어도 우리가 느끼는 일 초가 같은 일 초일까 묻는 이들은 없다. 그러나 사실 시간은 객관적이기도 공평하지도 않다. 시간은 인간의 뇌를 통해 해석된다. 어떤 사람의 하루는 어떤 사람의 반나절처럼 흘러간다. 똑딱, 초침이 넘어갈 때 방안의 사람들이 같은 일 초를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모두 다른 내적 시계로 셈을 하고 있다.

시간에는 측정 가능한 물리적 속성이 없다. 다세포생물들은 감각의 초인지적 통합을 거쳐 시간을 지각한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진동하고 울리는 것에 대한 뇌의 총체적 해석과 편집이 바로 시간에 대한 감각이다. 인간은 하루, 한 시간, 일 분, 일 초, 한 달과 일 년을 구분할 수 있지만, 각각의 뇌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은 다르게 지각된다.²⁰⁾

인용문은 근대의 시간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다. 근대는 시간을 시간/분/초 단위로 쪼개서 계량화할 수 있게 만들었다. 시간 절약이 노동의 핵심이 되고, 시간을 축적하고 모을 수 있게 되면서 시간 착취라는 새로운 형식이 생겨나며, 자연스럽게 시간은 하나의 상품이 되었다. 시간을 셀 수 있게 되면서 가속도는 산업과 진보의 새로운 원천이 되었다. 나태와 게으름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된다. 국가는 이렇게

20) 김초엽 (2021), pp. 287-288.

시간을 통제하며 국민의 삶에 개입했다.²¹⁾ 포스트 근대로의 진입은 이러한 시간의 속도를 테크놀로지의 도움으로 더욱 높였으며, 이에 따라 시간 순서에 따라 구성되는 인과 관계는 성립하지 않게 되었다. 금융 자본에 팔린 나의 현재와 미래는 동결되어 자본으로 수렴되고, 나는 ‘예측 가능한 미래’와 ‘측정 가능한 현실’이란 짝패에 구속된다.

문제는 예측 가능한 미래도 아무나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생겨난다. 자본의 흐름에 올라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세계가 바로 불안정을 극복한 예측 가능한 미래이다. 금융 자본의 시스템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권이 박탈당하는 순간에 속절없이 노출되어, 혐오의 대상이자 국가로부터 통제받아야 하는 비주체 취급을 받는다. 소설은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시선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나는 언니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다. 활동 지원을 받기 위해 심사를 신청했다. 적격 심사는 언니의 무능력함을 평가하는 자리였다. 쏟아지는 질문들 앞에서 언니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대신 언니가 지금 혼자 걸을 수 있는지, 손과 다리를 움직이는지, 밥을 먹을 수 있는지, 배변을 하고 뒤처리할 수 있는지, 스스로의 신체 상태를 인지하는지, 그런 질문들이 던져지고 낱알이 접수가 매겨졌다. 방문 심사를 하러 온 직원은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라고 했다.²²⁾

인용문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인식으로, ‘부정 수급’ 방지라는 말에서 확인되듯, 그 핵심에는 자본을 축적하지 못하는 주체를 통제하려는 목적과 공정한 지출이라는 명분이 포함되어 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언니의 생각과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생각과 말이 자본주의 시간관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결국 유희화는 자신을 통제하고 정상성의 범주로 포획하

21) 루이스 멍퍼드, 문종만 역 (2017), pp. 282-285.

22) 김초엽 (2021), p. 290.

려는 동생의 노력을 거부하고 다시 해외로 나간다. 자신을 통제하고 치료한다는 명분은 “기껏값은 비 고, 지원금은 터무니없이 적”(p. 292.)은 현실에 비출 때, 무엇보다 장애의 시간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따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유현화의 장애는 근대의 진보적 시간관이 함축하고 있는 경제 구조에 대한 비판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시간에 대한 은유라고 하는 편이 타당하다.²³⁾ 「로라」에서 진은 로라의 병을 “해결 불가능한 문제”(p. 114.)로 취급했으며, 「캐빈 방정식」에서 동생은 언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장애는 원래부터 해결 불가능한 문제이거나 치료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본의 시간 통치가 장애를 그렇게 규정한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해 국가는 장애를 병리화하여 사회에서 배제해야 경제 성장 속도를 높일 수 있기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장애의 시간성에 주목할 때 자본의 시간성이 갖는 폭력과 배제의 논리를 인지하고, 그 너머를 상상할 수 있게 된다. 유현화의 시간은 우리가 앞으로 가시화해야 하는 과제이다.

「마리의 춤」은 자본의 시간을 상대화하는 장애의 시간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해양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몇 달 사용한 테트라마이드라는 물질이 생태계로 확산하면서 시지각 장애를 가진 모그가 태어났다. 사회는 모그들을 폐쇄적 공동체에 가두어버렸지만, 일부는 재활에 성공했으며 보통 사람들에 섞여 살기 때문에 모그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모그로 태어나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마리는 춤을 배우기 위해 주인공 나를 찾아온다. 인간의 뇌에 기계를 삽입하여 앞이

23) 조애나 러스는 서사적 양식을 “시간 순서와 인과 양쪽에 의해 연결되는 자발적 인간 행위와 관련”된다고 한다. 반면에 서정의 원리는 “언외의 핵심 주제나 핵심 정서 주위에 개별적으로 흩어진 요소들”(조애나 러스, 나현영 역 (2020), p. 207.)로 시간 순서나 인과 없이 존재한다. 조애나 러스는 서사 양식의 사례로 남성 중심의 영문학을 들면서, 서정 양식의 사례로 탐정소설, 초자연적 소설, 그리고 SF소설을 든다. 이는 SF소설의 가정이 함축한 시간 개념에 대한 인식이다.

보이지 않는 마라도 춤을 배울 수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트랜스 휴먼이 된 마리는 동료 모그들과 페스티벌 특별 무대에서 춤을 추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지만, 사실 그 무대에서 대중들에게 특수 물질을 살포해서 시각 장애를 퍼트릴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사람들은 마리를 테러리스트라고 불렀다. 계획을 실행하기 직전 사실을 알게 된 주인공은 행동을 멈추라고 하지만, 마리는 “그러지 않으면 아무도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p.90.)라며 자기의 실천을 단행한다. 주인공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마리는 단지 어떤 흐름을 구체화해서 현실로 옮긴 것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은 그 전부터 분명히 있었다. 사람들은 모그들을 특수 구역에 가두었지만, 그들은 격리에 순응했던 적이 없다. 모든 인간이 한때 그랬듯 모그들은 어린아이였다가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었다. 마리를 울타리를 무너뜨렸고, 그 사건의 결과는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갈 방법은 없다.²⁴⁾

인용문에서 나는 마리의 계획이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오랜 시간 이어진 흐름의 결과라고 인식한다. 정상인들은 모그들을 특수 구역에 격리하고 망각했지만, 갇힌 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세대가 바뀌자 당연함에 의문을 표시하고 실천하는 존재가 등장한 것이다. 마리의 실천은 정상/비정상의 경계를 구분하며 발전한 사회에 공기처럼 존재하는 차별에 대한 도전이다.

장애를 극복하여 최대한 비장애인과 비슷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과학기술의 사명이다. 인간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장애는 숨기거나 극복해야 하는 대상이며, 과학기술은 이를 보조하는 인간 이성의 산물이 된다. 하지만 어느 여성 장애인의 외침처럼 기술에 투영된 욕망은

24) 김초엽 (2021), pp. 60-61.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한 국가의 시각이다.²⁵⁾ 「마리의 춤」은 이러한 세계관을 넘어서기 위한 실천으로서 행동의 의미를 강조하는 소설이다. 비장애인에게 그 행동은 불법적이고 비문명적인 테러이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삶을 지속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다. 장애인들의 테러는 비장애인들의 삶을 정지시켰다.

「로라」와 「케빈 방정식」이 보여주는 바처럼, 장애의 시간은 금융 자본의 시간성이 갖는 폭력을 가시화하는 과정이다. 달리 말해 장애의 시간은 소수자들의 시간을 착취하면서 유지되는 포스트 자본주의 시대의 시간을 확인시켜 준다. 「마리의 춤」은 두 개의 시간이 공존하는 현실에서 정상/비정상의 구분을 파괴하는 순간을 보여준다.²⁶⁾ 비록 그 순간은 파열의 시간이지만, 현실을 올바르게 되돌리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변화의 시간이 된다. 소설에서 이를 깨달은 일부 사람들은 장애를 안고 살아가길 선택했다.

25) 2018년 57세가 된 어느 여성 장애인은 평창 패럴림픽 개막식에서 척수장애인이 걸을 수 있게 해주는 로봇을 입고 성황 봉송을 하는 장면을 보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다. “장애인의 미래에 희망을 가져다주는 좋은 기술로 보이지만 그 기술에 투자하는 자본의 욕망은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손상을 ‘보조’하기 위해서 개발되는 기술의 한계는 모호하다. 예컨대 인간의 팔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의 팔은 슈퍼인간이며, 인간의 능력을 수백 배 증가하는 기술이 오히려 인간을 통제하고 억압할 수도 있다.”(장애여성공감 (2018), p. 60.)

26) 권력/저항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각기 다른 특이성을 가진 주체들이 ‘공통적인 것’의 거점을 바탕으로 혁명을 이루는 과정을 네그리와 하트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 바 있다. “시간의 문체가 본질적이 된다. 파열의 시간은 언제 오는가? (중략) 여기에서 우리는 결정(decision)을 또한 하나의 사건으로 인식해야 한다. 크로노스의 선형적 축적이 아닌, 그리고 시계들의 단조로운 똑딱거림이 아닌, 카이로스(kairos)의 갑작스런 표현으로 인식해야 한다. 카이로스는 화살이 활시위에서 발사되는 순간, 행동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조정환·정남현·서창현 역 (2008), p. 423.)

Ⅲ. 불안정한 존재로서 여성의 시간성

여성과 남성의 규범적 역할은 노동, 경제, 정치 등의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근대 산업사회는 핵가족 체제 속 여성과 남성의 이원화된 성 정체성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국가 권력은 여성은 출산과 양육의 과정을 담당하는 사적 주체로 경제 활동을 하는 남성을 공적 주체로 위계화함으로써 영속적 지배를 만들어냈다. 이 과정에서 생산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경쟁과 이동성과 다르게 여성에게 요구된 가치는 타인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었다.²⁷⁾ 문제는 금융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 시장 변화가 이러한 위계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으면서 생겨난다. 근대 산업사회에서 사적 감정으로 치부되었던 여성의 감정이 포스트 자본주의 체제를 성찰하는 매개가 된다는 논의²⁸⁾가 설득력을 얻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남성/여성이란 위계 구조의 전도를 위해 필요한 일이 바로 여성의 신체를 재인식하는 것이다. 출산을 위한 신체가 아니라 그간의 남성 중심의 위계 구조가 집약된 몸으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젠더 이분법이 함의하는 정치경제의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에는 재경 이모에서 조카 가운데로 이어지는 시간과 우주인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국가와 그에 포획된 대중의 시간이 충돌한다.

사람들은 어떻게 인류 대표가 최재경과 같은 부적절해 보이는 인물로 선발될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재경이 최종 선발된 세 명의 비행사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은 그다지 부각되지 않았다. 재경을 제외한다면 비행사들은 항공우주국 본부 출신의 백인 남성이었다는 사실도, 대신 비난의 대상은 공정한 선발을 위해 항공우주국에 처음 도입되었

27) 이 지점은 올리히 백이 근대 가족 공간의 젠더 문제로 지적한 내용이다. 올리히 백, 홍성태 역 (2006), 4장 논의를 참고.

28) 캐서린 린치, 강순원 역 (2016)

다는 인공지능 스택마인드를 향했다. 스택마인드 개발자들은 우주비행사들이 참여할 사이보그 그라인딩 프로젝트가 인간의 몸을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몸으로 탄생하는 과정이므로, 기존 신체의 적합성보다는 극한의 개조 과정을 버텨낼 정신력을 더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중략) 그러나 사람들은 해명에 쉽게 수긍하지 않았고, 인공지능 선발의 공정성에 대한 이의제기는 엉뚱하게도 항공우주업계 바깥으로도 불뚱이 튀었다. 각종 주요 직위의 성별·인종 할당제와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²⁹⁾

인용문은 재경이 우주인으로 선정된 이후 쏟아진 비판의 논리 구조를 보여준다. 사람들은 선발된 다른 두 명의 우주인은 “백인 남성”이란 점, 재경의 장애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고려하지 않고, 재경이 동양인 비혼모이자 “만성 전정기관 이상이라는 부적격한 건강 상태”를 가졌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선발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시각은 다른 산업으로 확산하여 성별과 인종을 우대하는 조치가 불공정하다는 비난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공정성이란 성별이나 인종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능력으로만 대상을 평가하는 것이다. 여러 논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때의 공정은 기회의 공정을 전제로 능력과 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을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지만, 신자유주의 시대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제에 불과하다.³⁰⁾ 이러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란 신자유주의 시대 자기 계발의 주체가 공유한 불안정성을 해소하려는 시간 관리의 규칙에 토대를 둔 점을 간과해야 한다.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미래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미래의 시각에서 현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관점을 만들었다.³¹⁾ 이럴 때 미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못한) 주체들에 대한 비판은

29) 김초엽 (2019), p. 280.

30) 스티븐 J 맥나미, 김현정 역 (2015); 장은주 (2021) 등

31) 신자유주의 시대 자기 계발 주체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는 서동진 (2009)를 참조.

자연스러운 인식론적 결과이다. 재경과 가운의 시간은 신자유주의 주체의 시간관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면을 가시화한다.

우주인으로 최종 선발되어 검사를 앞두고 있던 가운은 어린 시절 자신의 우상이었으며 선배 우주인이기도 했던 재경 이모가 터널로 가는 우주선에 탑승하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후 소설은 가운의 시선을 따라가며 재경이 왜 우주로 가지 않았는지를 추적한다.

화성 근처의 터널을 통과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우주인들은 사이보그 그라인딩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로 거듭나는 훈련을 한다. 그렇게 사이보그가 된 인간, 즉 트랜스 휴먼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주로 나아간다. 재경과 가운은 이러한 사이보그 인간과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지만, 소설의 서사에서는 사이보그가 되는 과정을 수행한다. 다음은 사이보그가 되고자 했던 재경의 의도를 보여준다.

“네. 물론 우주 저편도 기대가 되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일단 인간을 넘어서고 싶어요. 우리의 몸은 너무 한계가 많죠. 특히 제가 딸 서회를 가졌을 때는,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얼마나 많길래 이 고생을 해야 하나 한숨이 나왔다니깐요. 더 나은 몸을 가질 수 있다면 꼭 이대로의 몸으로 살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인간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 상상하면 재미있어요.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가 꼭 땅 위에서 살아야 할 이유도 없겠죠.”³²⁾

인용문에서 재경은 우주 저편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자기의 신체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더 나은 몸을 가지고 싶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재경에게 트랜스 휴먼이 된다는 것은 우주 정복이란 목적이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유색인 여성을 향한 남성 권력의 시선을 넘어서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행위이다. 장애를 지니고 결혼까지 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따듯한 시선으로 볼 사람은 많지 않다. 재경이 딸 서회를 가졌을 때 경험한 문제란

32) 김초엽 (2019), p. 281.

자신을 향한 주위의 멸시 어린 시선 아니었을까. 도나 해러웨이는 사이보그를 상상의 존재이자 현실적 존재라고 정의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유색인-여성을 제시한다. 근대의 서구 중심적 노동구조 속에서 가장 변두리에 위치한 유색인 여성의 존재를 통해 가시적 세계의 위계화된 구조를 질문하며 다른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기 때문이다.³³⁾ 이런 맥락에서 재경은 사이보그이다. 비록 그녀의 몸은 상당 부분 기계화되었지만, 이분법적이며 위계화된 사회 구조를 인식 가능한 영역으로 끌고 온다는 점에서 현실에 존재하는 사이보그이다.³⁴⁾

그렇다면 재경은 왜 우주로 나아가지 않고 심해로 뛰어들었을까? 재경이 심해로 뛰어들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언론에서는 “유일한 여성, 동양인, 비혼모라는 눈에 띄는 특성”(p. 299.)이 주는 압박감을 극복하지 못해서 자살을 결심했다고 한다. 앞서 기술했듯 재경이 사이보그가 되기를 선택한 것은 이러한 시선을 환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한 마디로 재경에게 우주로 간다는 것은 자신을 위계적으로 내려다본 주체들의 목적을 공유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가운은 이 모든 사실을 의식하며 우주로 간다. 재경이 자신을 향한 인종적·젠더적 위계를 가시화했다면, 가운은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시·공간을 발견해낸 것이다. 작가는 가운이 발견한 세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어쩌면 그 세계는 「로라」의 「로라」와 「캐빈 방정식」의 「유현화」의 세계처럼, 현실과 공존하지만 연결되기 어려운 시간에 속한지도 모르겠다. 작가는 그 시간을 성급하게 보여주기보다는 여성 인물의 임신과 출산의 시간에 초점을 두며, 그 과정을 수행하는 재경의 신체에 새겨진 폭력에 대해 질문한다.

33) 도나 해러웨이, 황인선 역 (2019).

34) “어떤 사람들은 재경이 인류를 대표하기에 불충분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재경이 인류의 소외된 사람들을 대표하여 우주로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은 과소대표되면서 동시에 과대대표되었다.”(p.297.) 사이보그로서 재경의 신체는 양극단에 위치한 사람들을 부감하며 바로 그런 구조 자체를 문제시 삼는다.

「관내분실」은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엄마 은하와 딸 지민의 연결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은하는 산후우울증으로 딸에 대한 집착과 분노, 그리고 사랑이 공존했다. 그런 엄마에 대한 지민의 기억은 대부분 부정적이어서, 엄마가 죽고 도서관에 마인드 업로딩을 했으나 3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다. 하지만 지민은 임신을 하고 엄마를 떠올린다. 딸에서 엄마로 신분이 바뀌는 상황에서 엄마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비로소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찾아간 도서관에서 엄마가 분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지민과 은하, 다시 말해 딸과 엄마는 각기 다른 시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존재이다. 하지만 여성으로서 임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연결된다. 가로막혔던 두 여성이 연결될 수 있었던 도구가 바로 테크놀로지이다. 지민은 인공 뇌 시뮬레이션으로 엄마를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는 그녀와 직접 연결된 물건이 필요하다는 도서관 직원의 말을 듣고, 엄마가 아닌 ‘김은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다는 점을 깨닫는다. 지민은 엄마가 “그렇게 원래 없었던 존재처럼 사라져서는 안 되는 거라”(p. 260.)생각하고, 아빠 현욱을 만나서 엄마가 책 표지 디자인 일을 하다가 임신을 하고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만약 그때 엄마가 선택해야 했던 장소가 집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어떻게든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있었다면. 표지 안쪽, 아니면 페이지의 가장 뒤쪽 작은 글씨, 그도 아니면 파일의 만든 사람 서명으로만 남는 작은 존재감으로라도. 자신을 고유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를 남길 수 있었다면. 그러면 그녀는 그 깊은 바닥에서 다시 걸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녀를 규정할 장소와 이름이 집이라는 울타리 밖에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녀를 붙잡아줄 단 하나의 끈이라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더라면.³⁵⁾

인용문은 사적 영역에 간혀 결국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엄마에 대한 딸의 인식이다. 누가, 김은하를 병들게 한 것일까? 남편은 죽은

35) 김초엽 (2019), p. 264.

아내가 자신을 다시 만나는 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할 만큼의 죄책감을 가진 인물이다. 딸은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다가 임신을 하고 나서 간신히 김은하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그것은 엄마가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했다. 이렇게 본다면 김은하를 병들게 한 것은 단순히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여성을 집 안으로 내몰며 그 범주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비난한 근대의 가족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성장과 개인(가족)을 위한 여성의 헌신이란 윤리적 의무감이 김은하의 내면을 파괴해 나간 것이다.

누군가는 이 지점에서 여성에게 이런 헌신의 의무감이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과연 그럴까? 물론 과거에 비할 때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과 가사 노동을 하는 남성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가사 노동의 분업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가족은 시장과 연결된 경제 활동의 최소 단위이다. 고학력 자본을 가진 부모 세대의 재력과 인적 네트워크는 대물림되어서 자녀 세대의 경제력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가족 단위의 결속력은 공/사의 위계를 허물며 더욱 강력해지며, ‘자식 사랑’으로 합리화되는 선택은 자본주의 체제 하 빈부격차를 확산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관내분실」의 마지막 장면에서 김은하를 만난 지민이 “엄마를 이해해요”라고 단 한마디를 하는 장면은 상징적이다. 여성의 신체를 경제 시스템으로 밀어 넣었던 구조에 대한 이해는 소설의 과학기술이 가져다 준 중요한 성과이다. 다시 말해 「관내분실」에는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향상하는 과학기술이 아니라 바로 그 몸에 새겨진 경제적이면서 사회적인 폭력의 구조를 가시화하는 힘으로서 과학기술에 대한 지향이 흐르고 있다. 이처럼 엄마/딸이라는 분리된 두 개의 시간은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연결되며, 여성의 노동과 시간을 비가시화시킨 자본주의 근대의 구조를 상대화할 수 있게 된다.

IV. 대항하는 시간을 어떻게 가시화할 것인가?

2020년 초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19’ 사태는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다. 일상에서 이루어진 크고 작은 변화의 기저에는 바로 테크놀로지가 자리 잡고 있다.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미래의 테크놀로지는 원래의 속도를 가속해 우리의 일상에 들어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SF는 한국 문단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테크놀로지를 빼놓고 일상을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에 인간의 미래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사고실험이 이루어지는 장이 바로 SF이며, 그런 점에서 논의는 구체적 현실 인식에 토대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김초엽 소설에 나타난 시간정치론의 문제를 장애와 젠더를 매개로 살펴보았다. 김초엽 소설에는 두 개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첫 번째 시간은 산업 자본주의에서 금융 자본주의로 이동하며 생겨나는 시간이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부정하거나 유예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훼손한다. 자기 계발로 정당화되는 이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체는 혐오와 비난의 대상이 된다. 「로라」와 「캐빈 방정식」은 장애의 시간을 초점화하며 금융 자본주의의 시간 통치를 상대화한다.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여긴 사고의 근저에 자리하는 시간의 문제를 꺼내며 새로운 지평의 시간에 대해 질문한다. 「마리의 춤」은 일상의 시간을 정지시키며 금융 자본주의의 시간성을 한순간에 해결하는 특징을 보인다. 마리의 폭력은 금융 자본의 시간에 대항하는 장애의 시간이 갖는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한편 장애인과 여성은 불안정한 시대에 규범화되지 못한 주체로서 동일한 의미 맥락을 갖는다. 여성을 여성답게 만드는 법과 문화는 특정한 정체성으로 여성을 규범화한다. 이때의 규범이란 앞서 장애를 병리화한 의제와 동일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불안정한 주체로서 여성의 시간성에 대한 소설은 여성과 장애의 교차성을 잘 보여준다.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에서 유색인

여성 과학자 재경을 비난하는 대중들의 인식에서 드러난 공정이란 입장은 금융 자본주의의 시간규범성을 공유하며 여성과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각을 비판한다. 재경은 장애를 지닌 결혼하지 못한 여성으로서 자기의 신체에 새겨진 금융 자본의 시간에 포획된 주체의 인식론이 갖는 문제를 드러낸다. 「관내분실」은 사회로부터 박탈당했던 엄마의 시간에 대한 딸의 인식을 통해 그간 어떻게 여성이 사회에서 배제되었으며, 또 어떻게 다시 연결될 수 있는지를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장애와 여성의 시간을 경유하며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시간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재화 할 수 있을까?³⁶⁾ 작가는 각각의 소설에서 서로 연결되기 어려운 두 개의 시간을 병치하지만 궁극적으로 연결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고 있다. 「로라」의 마지막에서는 로라가 진의 집으로 찾아왔으며, 「캐빈 방정식」의 결론에서 동생은 언니가 말한 시간 거품을 발견했고,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에서 가운은 마침내 우주에 도착한다. 이렇게 대항하는 시간은 금융 자본의 시간을 품고 도약한다. 그 시작은 금융 자본의 시간성을 수행하는 과정에 정치와 경제가 배제하는 주체로서 장애인과 여성의 시간을 재인식하는 것이다. 여성과 장애인을 공정과 능력을 기치로 배제하는 권력의 시각이 가진 시간정치를 인지하고, 「관내분실」에서 명확히 확인했듯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그들의 시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나아가 작가는 금융 자본의 시간에 대항하는 시간을 환경 문제를 매개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오래된 협약」에는 지구 바깥의 행성 벨라타에 거주하는 노아와 지구에서 탐사선을 타고 벨라타로 조사를 온 이정이 등장한다. 이정은 벨라타의 사람들이 스물다섯 해를 넘기지 못하고 특히 생애 마지막 다섯 해는 몰입에 빠져 기억상실, 언어능력 감퇴 등의 고통을 받다가 죽게

36) 장애인과 여성은 사회의 규범성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소수자의 범주로 묶을 수 있다. 즉 소수자의 시간을 문제 삼는 일은 각기 조금씩 맥락은 다르지만, 우리 사회가 각각의 소수자 주체를 어떤 논리로 비가시적 존재로 규정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런 현상은 벨라타의 대기에 있는 독성 물질 때문에 생겨나는 것으로, 벨라타 행성의 오브를 먹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무슨 일인지 벨라타 사람들은 오브를 신성시하며 먹지 않는다. 진실은 다음과 같았다. 오래전 지구에서 벨라타 행성으로 온 사람들은 대기의 독성 때문에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오브들이 자신의 시간을 나누어주어 함께 살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벨라타 행성의 사람들은 자연의 시간을 공유하며 삶을 지속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은, 이 행성의 시간을 잠시 빌려 온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³⁷⁾은, 인간의 삶이란 곧 자연의 시간을 일부 공유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인간의 시간이란 자연의 오랜 시간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인류세’의 문제의식을 상기하며 지금-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를 단박에 떠올리게 한다.³⁸⁾ 인간-자연의 연결된 시간을 구체화하는 것에 테크놀로지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대항하는 시간을 구축하기 위한 시작이 된다.

37) 김초엽 (2021), p. 224.

38) 이런 점에서 김초엽의 첫 장편소설 『지구 끝의 온실』(자이언트북스, 2021)이 지구의 환경오염 문제를 다룬 것은 우연이 아니다. 김초엽이 장편으로 지구 환경 문제를 다룬 것은 근대 자본과 자연의 이분법적 인식론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결과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강내희 (2004),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문화정치경제』, 서울: 문화과학사.
- 김미현 (2020),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여성과 테크노페미니즘」, 『여성문학연구』, 49: 10-35.
- 김윤정 (2021), 「김초엽 소설에 나타난 포스트휴머니즘과 장애」, 『여성문학연구』, 54: 77-107.
- 김초엽 (2019),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서울: 허블.
- _____ (2021), 『방금 떠난 세계』, 서울: 한겨레출판.
- _____ (2021), 『지구 끝의 온실』, 고양: 자이언트북스
- 노대원 (2018), 「포스트휴머니즘 비평과 SF」, 『비평문학』, 68: 110-133.
- 서동진 (2009),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탄생』, 서울: 돌베개.
- 신상규 (2014),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 파주: 아카넷.
- 신성환 (2020), 「‘확장된 마음’과 인간-기술의 올바른 연합: 김초엽 소설 두 편을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49: 137-167.
- 연남경 (2020), 「여성SF의 시공간과 포스트휴먼적 전망」, 『현대소설연구』, 79: 105-139.
- 이화인문과학원 편 (2013), 『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장애여성공감 (2018), 『어쩌면 이상한 몸』, 파주: 오월의 봄.
- 장은주 (2021), 『공정의 배신』, 서울: 피어나.
- 전혜은 (2018), 「장애와 퀴어의 교차성을 사유하기」, 『인문과학』, 113: 267-318.
- 조귀동 (2020), 『세습 중산층 사회』, 서울: 생각의힘.
- 최철웅 (2016),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사회 금융화의 문화정치경제학」,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도나 해러웨이 (2016), 황인선 역, 『해러웨이 선언문』, 서울: 책세상.
- 로지 브라이도터 (2013), 이경란 역, 『포스트 휴먼』, 파주: 아카넷.
- 루이스 멍퍼드 (2010), 문종만 역, 『기술과 문명』, 서울: 책세상.
- 세린 빈트 (2014), 전행선 역, 『에스에프 에스프리』, 파주: 아르테.
- 스티븐 J 맥나미 (2013), 김현정 역, 『능력주의는 허구다』, 서울: 사이.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2004), 조정환·정남현, 서창현 역, 『다중』, 서울: 세종서적.

_____ (2017), 이승준 역, 『어셈블리』, 서울: 알렘.

올리히 백 (2001), 홍성태 역, 『위험사회』, 서울: 새물결.

조애나 러스 (1995), 나현영 역, 『SF는 어떻게 여자들의 놀이터가 되었나』, 옥천군: 포도밭출판사.

캐서린 린치 외 (2015), 강순원 역, 『정동적 평등 누가 돌봄을 수행하는가』, 서울: 한울아카데미.

폴 메이슨 (2015), 안진이 역, 『포스트 자본주의 새로운 시작』, 서울: 더퀘스트.

한소범 (2019), “2020년대 대표작가 박상영·김초엽·장류진.. 한국문학, 넓어지고 깊어진다”, <https://news.v.daum.net/v/20191212044307429> (검색일: 2022.10.18.)

【Abstract】

Technology and Time Politics Represented in Kim Cho-Yeop's Novel

Choi, Byoung-Goo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blem of time politics in Kim Cho-Yeop's novels. Financial capitalist societies present the future through loans and credit. Subjects exposed to instability defer the present and devote themselves to self-development for the future. At the same time, the subject who cannot join the time of financial capital is branded as an object of hatred and criticism. The time of disability is a critique of the time of financial capitalism and the world we have to share. “Laura” and “Cabin's Equation” critically relativize the temporality of a society that regards disability as an object of treatment. “Dance of Marie” stops the time of daily life and brings the time of disability into the present. Meanwhile, women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in common that they cannot join the time of financial capitalism. Focusing on women is not simply a slogan to recover women's rights and interests, but rather reveals the problems of time in a society that has made women's time invisible. The fairness shown in “About My Space Hero” and the daughter's perception of the mother's time in “Lost Inside the Hall” would be good examples of this.

[Key Words] science fiction, gender, financial capitalism, ,time politics, disability,
Kim Cho-Yeop

논문 투고일: 2022. 09. 22

심사 완료일: 2022. 10. 13

게재 확정일: 2022. 10. 13

